광주 기아차 운송 화물차주들 운송료 인하 반발 총파업 예고

110명 "29일부터 돌입"…수출 등 하루 2000대 운송 차질 우려

글로비스측 "타 공장 형평성 등 감안 결정…대체인력 투입 검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목포항 등지로 운송하는 화물차주들이 운송료 인하 움직임에 반발,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차주들은 기아차로부터 완성차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현대글로비스 측이 자신들에게 지급하는 운송료의 16%가량을 일방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주장이지만 글로비스와 기아차 측은 국제유가 하락, 경기도 등 타 공장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상화 방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4개월여간의 협상에도 양측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파업이 현실화돼 수출 물량 공급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광주서부경찰과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캐리어분회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쏘울, 스포티지 등 완성차를 운송하는 아진탁송, 현성MTS 등 4개 업체 소속 화물차주 110명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이날 뜻을 모았다.

화물차주들이 총파업에 나서려는 이유는 지난해 10월께 현대글로비스 측이 '운송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운송료를 깎으려고 한데서 비롯됐다. 광주공장에서 목포항으로 완성차 6대를 화물트레일러 1대로 싣고 갈 경우 6대분(28만5000원가량)을 주던 것과 달리 오는 7월부터는 5대분(23만7000원가량)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화물차주들이 속한 화물연대 카캐리어 분회 집행부와 4개의 운송업체, 글로비스 측은 협상을 벌여 지난 10일 5대분 지급에서 5.8대분 지급까지 의견을 좁히고 운송료 인하안을 잠정합의했지만 조합원 등 화물차주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파업 결의로까지 이어졌다.

앞서 글로비스측은 지난 2014년에도 광주공장～목포항 구간 운송료를 기존 6대분 지급에서 5대분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지문을 보냈다가 화물차주들의 거센 반발과 갑질 논란에 밀려 이를 거둬들이기도 했다. 특히 글로비스 측이 화물차주들에게 6대의 완성차를 싣고가면 1대는 '공짜'로 옮겨달라는 내용인데다, 화물차주들이 글로비스 측의 독려를 받아 5대를 실을 수 있는 트레일러를 버리고 7000만원을 들여 최대 6대까지 싣는 트레일러를 설치한 점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화물차주들은 온전한 6대 분량의 운송료 지급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공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오후 7시40분～8시20분까지 차량 이동을 금지하면서 밤 10시까지 목포항에 완성차를 하차해야하는 화물차주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 되레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여건을 나쁘게한다는 것이다.

카캐리어 분회장이자 현성MTS 소속 화물차주 최성배씨는 "기아차와 현대글로비스가 완성차 6대 운송료를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확약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은 피할 수 없다"면서 "기아차와 글로비스 측은 파업에 대비 대체인력 투입을 검토하겠지만 화물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모두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글로비스 관계자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하루 1500대 가량의 수출 물량과 내수용 700여대 중 상당부분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면서도 "완성차 상차수와 관계없이 1회 왕복을 기준으로 운송료를 지급하는 타지역 공장과의 형평성, 국제유가 하락 등을 감안한 운송료 현실화 방침으로 현재까지는 화물차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3일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의 새 식구가 된 수컷 기린 '마린'(오른쪽)이 암컷 기린 '아린'과 서로의 체취를 맡으며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스타 기린 '아린' 꽃피는 춘삼월 시집 갔다네

광주 우치동물원 수컷 구입 4년만에 새 남편 '마린' 맞아 서로 체취 맡으며 관심 보여 분리 사육 계획 바꿔 '합방'

수년 전 가족들을 잇따라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을 지닌 광주우치동물원의 암컷 기린 '아린'이 꽃피는 춘삼월 새 남편 기린을 맞았다. 경기도 한 동물원에서 광주로 장가 온 수컷 기린 '마린'(3살)과 '아린'(13살)은 서로를 보자마자 체취를 맡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23일 오후 3시20분께 '마린'이 기린 사육사에 무사히 방사되자 우치동물원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방사장에 들어선 '마린'은 우치동물원이 낯설었던지 큰 눈망울을 끔뻑거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워낙 사람들을 잘 따르고 온순한 탓에 이내 긴 다리로 방사장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적응하는 모양새였다.

우치동물원측은 '마린'이 새 집에 금새 적응하는 것을 보고 당분간 '아린'은 내실에, '마린'은 방사장에서 분리 사육하려던 계획을 바꿨다.

우선 내실 문을 일부 개방하자 좁은 문틈 사이로 '아린'이 고개를 내밀어 깊은 관심을 보였다. 4년 만에 만나는 새 가족이 반가운 모양이었다. '마린'도 '아린'과 눈이 마주치자 다가가 긴 목을 숙여 체취를 맡았고, '아린'도 이내 인사를 건네듯 '마린'의 몸에 긴 목을 비볐다.

담당 사육사가 내실 문을 완전 개방하자 '아린'과 '마린'은 방사장을 나란히 거닐었다. '마린'이 더 적극적인 모양새였다. '아름다운 기린'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아린'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관심을 표시했다. 두 기린은 이따금 서로 몸을 맞대며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 2014년부터 '아린'에게 새 짝을 찾아주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 해왔다. 수컷 기린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딸까지 출산한 '아린'이 지난 2011년 남편과 딸을 잇따라 떠나보낸 뒤 혼자서 사육사를 쓸쓸히 지키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동물 구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말께 경기도 한 동물원에서 2013년 4월 태어난 수컷 그물무늬 기린을 어렵게 구입, '마술과 같은 매력을 지닌 기린'이라는 의미를 담아 '마린'이라는 새 이름을 선물해줬다.

'아린' 보다 10살이나 어린 '마린'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체구와 기린 특유의 그물 무늬도 '아린' 보다 작다. 우치동물원에서 관람객들의 관심과 사육사들의 보살핌을 받아 성장하면서 점차 무늬도 커지고 털 빛깔도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치동물원 김재창 기린 담당 사육사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마린이 내년이면 성적으로도 완벽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아린이도 출산 경력이 있어 둘 사이에 번식 확률도 있다"며 "오늘(23일) 내실에서 첫날밤을 보내는 아린과 마린이 잘 어울려준다면 우치동물원 최고 스타 동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포털사이트 맛집 검색 미끼 업주 700명 등쳐

3억여원 가로챈 9명 적발

포털사이트에서 맛집을 검색하면 위쪽에 노출해주겠다며 700명에 달하는 음식점 업주를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포털사이트 맛집 검색때 상위권에 노출해주겠다며 음식점 업주 697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온라인 광고업체 대표 A(42)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56)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3곳과 내비게이션 회사 4곳에서 맛집을 검색할 때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하겠다고 속여 식당 업주 697명에게 1119회에 걸쳐 3억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년 이용료인 57만원을 미리 받은 뒤 자신들 회사 블로그에 간단한 식당 소개만 했을 뿐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고소 등을 대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했으며 업주들이 계약 취소나 해지를 요구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항의하다 지친 업주들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포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포털사이트 검색 시 노출 순위나 블로그의 리뷰, SNS 입소문을 신뢰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온라인 마케팅 대행 사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준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블로그 개념도 몰랐던 피해자들이 화려한 말에 속아 넘어갔다"며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결제 수단 등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광고 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에서 운용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02-405-4751)를 활용하거나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심 주택가 주차장서 40대 男 숨진 채 발견

광주 도심 주택가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주택가 주차장에서 박모(49)씨가 숨져있는 것을 출근길 시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의 머리에는 둔탁한 물체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남아 있었고 시신 주변에선 무게 7kg가량의 피 묻은 돌덩이가 발견됐다.

서울에 주소를 둔 박씨는 광주에 홀로 거주하며 직업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며, 숨지기 전날 일용직 근로자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사인을 규명하려고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박씨의 지인과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수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주차장 벽 충돌 여성운전자 숨져

23일 오전 7시35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우체국 주차장 벽면에 강모(여·58)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해 부딪쳤다. 이 사고로 강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인근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우회전 신호를 넣고 주차장에 들어온 뒤 곧바로 담벼락으로 돌진해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경인기자 kki@

미국 원정 성매매 여가수 등 연예인 4명 약식 기소

쌍나팔

○…검찰이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유명 여가수를 비롯한 연예인 4명을 약식기소.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유명 여가수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

○…A씨와 함께 이날 약식 기소된 3명의 여성은 걸그룹 출신 연기자, 배우,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이들은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41)씨 소개로 사업가를 만났으며,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 /연합뉴스

1) 커피숍 임대

북구 우산동 상업지역

▣ 유동인구 많음 , 시설완비 , 현 상업중

(커피, 식사, 맥주 판매가능)

보증금 2,000만 월세 100만 (시비 2,500만)

2) 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 모아 A.P.T 후문 앞 코너

▣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

시설 완비, 코너자리, 원룸촌 내 위치

(커피,식사,맥주 판매가능)

(※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사무실 및 오피상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융자 → 26억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좋음)

010-7384-7800

㈜ 대신경매 법 률 경 매

(특수물건 추천)

1. 동구계림동 (근린시설) (토 55평,건175평)
(1층 점포 , 2층~3층 사무실, 4층 주택 , 지하 점포)
광주동부 소방서 북측인근 (왕복 2차선 도록 접함)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3억2천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건444평)
(1층 – 식당 , 2층~5층 룸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3.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건131평)
(1층~3층 총룸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 주변 아파트단지 ,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5.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룸 37개, 운천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가능, (5층 총룸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7백

수익성 상가 (주택)

1.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50평)
※ 토지 평당 180만원
1층~2층 주택 (2층 주택 월세 30만 가능)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8천5백만

2. 남구 월산동 (토 36평,건20평)
동신대 한방병원 부근 , 약 3m 포장도로 접
감정가 5천9백 → 최저가 5천9백

3. 동구 산수동 (토 42평,건25평)
※ 토지 평당 150만원
단층주택 , 다용도실 약 6평 별도있음
감정가 6천8백만 → 최저가 6천 8백만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 북구 일곡동 (토 52평 ,건 72평)
※ 1층 점포 2층 주택 코너자리
감정가 1억9천8백 → 최저가 1억9천8백

2.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1층~2층 상가 ,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 2천

3. 동구 계림동 (토 36평 ,건 55 평)
※ 1층 (음식점,창고) 2층 (주택)
감정가 1억8천5백 → 최저가 1억8천5백

4. 동구 충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